

ISSN 1229 - 6198

---

#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

VOL. 7. NO.2 2004

大韓醫療氣功學會

## 激勵辭

# 韓方醫藥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자.

지난해 韓醫界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벅찬 한해였습니다. ‘韓醫藥育成法’이라는 독립법안의 제정은 물론, 大統領主治醫 임명, 國立醫療院의 한방병원설립 확정, WHO 서태평양지역 傳統醫學 담당관 파견, 한방해외무료의료봉사, 大韓韓醫師協會 회관 기공식 등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中國과 日本 등 세계 傳統醫學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펼치는 한편 北韓을 방문해 우리 民族醫學의 또 다른 갈래인 高麗醫學과 교류의 물꼬를 댔습니다. 분단 50여년이 흘렀지만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韓醫學의 남북교류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韓醫界는 韓方醫療를 통한 보다 나은 국민보건 향상 도모와 韓醫藥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지식산업인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韓醫藥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의약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韓醫學의 世界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韓醫學의 성장을 위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학문적인 연구는 각 분과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연구결과는 學會誌를 통해 발표되어 論議와 討論의 場이 활발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大韓醫療氣功學會의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연구결과가 모여 大韓醫療氣功學會誌 第7卷 2號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大韓醫療氣功學會 여러분들이 醫療氣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主導的이고 核心的인 노력을 계속해 준다면 21세기를 이끌어갈 의학은 우리 韓醫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서 귀중한 玉考를 내어주신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員들께 勞苦를 致賀하면서 심심한 感謝의 뜻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새로운 정보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며 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하며 激勵辭에 가름합니다.

2004. 1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재규

## 激勵辭

# 이제 한의학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제 한의학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도 크게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대회를 통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미국 등 선진 각국은 동양의학의 연구에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천년의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한계성을 대체할 수 있는 의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방의학 뿐만 아니라 치료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1만 한의사 회원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정진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치료의학으로써의 한의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연구결과가 모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7권 2호를 발간하게 된 것에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한의학회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되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의료기공 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믿습니다.

2004. 1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동 석

## 의료기공은 한의학의 또 다른 표현

---

의료기공은 한의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벌써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대한의료기공학회 학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양은 많이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주옥같은 논문들이 나와 준 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기 발표한 논문들은 한의사들의 마음이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써놓은 값진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공은 한의학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의학은 調氣療法, 行氣療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를 조절하고 운행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학입니다. 의료기공이 지금은 전혀 다른 용어처럼 쓰고 있어 안타깝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공은 곧 한의학인 것을 인정하고 이해 할 때까지는 의료기공이란 표현이 존재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또 많은 기 관련 분야나 한의학에서 유용하게 쓰여 질것이라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는데 값진 자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문들은 기공요법의 제도권진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여 관련 논의에 충분한 답변 자료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의학의 역할은 자기 자리를 찾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많은 외국의료자 진입할 것이라 예측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은 충분히 그러하고도 남는 훌륭한 의학입니다.

지금의 한의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의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한 치료의학인 한의학이 외국 의료자본에 밀려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학회지 발표는 그러한 자리매김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04. 1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 目 次

## ■ 激勵辭

韓方醫藥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자. :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재규  
이제 한의학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동석

## ■ 發刊辭

의료기공은 한의학의 또다른 표현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 ■ 文獻 論文

妊娠中 練功法에 對한 小考 장명준 · 이상룡 .....	1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關한 研究 황정일 · 윤종화 .....	18
《三一神誥》에 나타난 醫療氣功에 關한 研究 반창열 .....	40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이동휘 · 황민섭 · 윤종화 .....	95

## ■ 公법 소개 論文

기태교(氣胎敎)-청정공(淸靜功) 敎育이 임신부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김미나 .....	111
한알몸짓을 통한 本草의 研究方法 제안 이정원 · 김경철 · 박상환 .....	134
여러 문파의 관정법에 관한 소개 이재흥 · 안훈모 · 이은미 .....	146

## [부록]

■ 의료기공의 임상적 유효성 관련논문.	214
■ 한국한의학표준의료행위분류에 대한 명칭정의 및 기타 규정사항	246

■ 기공요법 임상사례 및 기공병 사례	284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290
■ 대한의료기공학회 논문 규정	294
■ 대한의료기공학회 명단 및 주소록	306
■ 대한의료기공학회 기구조직 및 임원	309